



미 증시, 민간 고용 둔화에도 유가 급락 등으로 약세

미국 증시 리뷰

6일(수) 미국 ADP 민간 고용 둔화에 따른 금리 인하 기대감이 상존했으나, 70 달러를 하회한 국제 유가 등으로 인한 미국 경기 하드랜딩 우려 등이 차익실현 압력을 자극하면서 하락 마감. (다우 -0.19%, S&P500 -0.39%, 나스닥 -0.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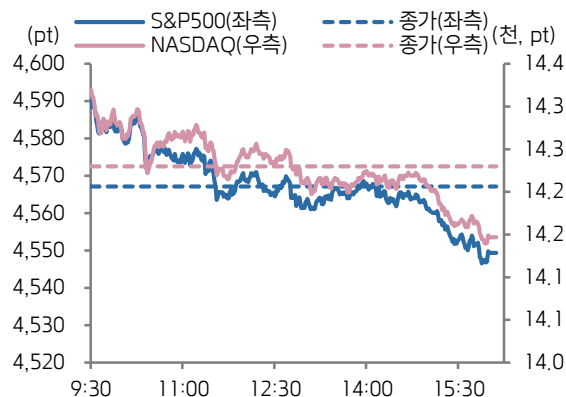
미국의 11월 ADP 민간 고용은 전월대비 10.3만 명 증가에 그치며 컨센서스(12.8만 명)와 전월치(11.3만 명)를 모두 크게 하회, 약 2년 만에 최저치 기록. 특히, 지난 달 발표된 10월 민간 고용 지표 또한 기존 11.3만 명에서 10.6만 명으로 하향 조정되며 미국의 고용시장 둔화세가 본격화되는 모습. 임금의 경우에는 전년동기대비 5.6% 상승하며 지난 10월(5.7%) 대비 하락, 14개월 연속 둔화세 지속되며 임금 상방 압력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

한편, 미국의 올해 3분기 비농업 부문 노동 생산성은 전 분기 대비 연율 5.2% 상승, 기존 발표된 예비치인 4.7% 대비 상승. 3분기 단위 노동 비용의 경우에는 올해 3분기에 연율 기준 1.2% 감소, 기존 예비치였던 -0.8% 대비 낙폭이 더 확대. 노동생산성은 증가하고 있지만 노동 비용이 감소하는 상황은 인플레이션 하락 속도를 더 부추길 수 있는 요인.

미국 상무부에서 발표한 10월 미국 무역적자 규모는 643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월 대비 5.1% 증가, 금번 무역적자 규모는 전월 수정치(612억 달러)와 컨센서스(641억 달러)를 모두 상회하는 수준. 미국의 무역적자 규모는 3월을 정점으로 감소세를 이어오다가 지난 9월 이후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중. 금번 미국의 무역적자 확대는 미국산 자동차 및 약물 수출이 감소한 것에 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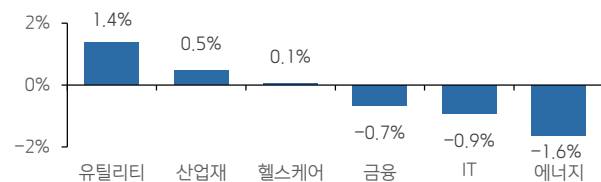
업종별로 유틸리티(+1.4%), 산업재(+0.5%), 헬스케어(+0.1%) 강세, 에너지(-1.6%), IT(-0.9%), 금융(-0.7%) 약세. 애플(-0.57%), 알파벳(-0.74%), 아마존(-1.61%), 메타(-0.26%), 엔비디아(-2.28%) 등 그간 상승세가 거뒀던 빅테크 종목들은 쉬어가는 흐름을 보임. 또한, 경기침체 우려 반영 및 OPEC(+의) 감산 지속에 대한 의구심이 부각된 영향으로 WTI가 70 선을 하회. 이에 따라, 빅테크 업종과 더불어 엑슨모빌(-1.32%), 플러그파워(-5.90%) 등 주요 에너지 종목을 중심으로 하락세가 컸음. 이외에도 장기 가이던스 부재에 실적 우려가 부각된 영향으로 쇼피파이(-4.6%)의 낙폭이 컸던 점이 특징적.

S&P500 & NASDAQ 일종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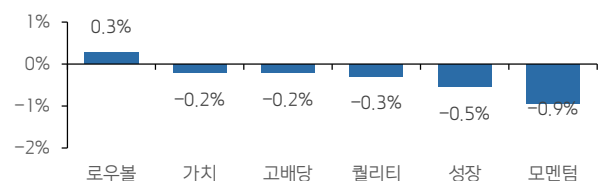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코스피	2,495.38	+0.04%	USD/KRW	1,313.08	+0.13%
코스피 200	333.45	+0.18%	달러 지수	104.19	+0.13%
코스닥	819.54	+0.76%	EUR/USD	1.08	-0.3%
코스닥 150	1,302.31	+0.43%	USD/CNH	7.18	+0.02%
S&P500	4,549.34	-0.39%	USD/JPY	147.36	+0.14%
NASDAQ	14,146.71	-0.58%	채권시장		
다우	36,054.43	-0.19%	국고채 3년	3.470	-1.2bp
VIX	12.97	+0.93%	국고채 10년	3.540	-3.5bp
러셀 2000	1,852.05	-0.21%	미국 국채 2년	4.595	+1.8bp
필라. 반도체	3,645.82	-0.72%	미국 국채 10년	4.110	-5.5bp
다우 운송	15,230.03	-0.39%	미국 국채 30년	4.220	-7.7bp
유럽, ETFs			원자재 시장		
Eurostoxx50	4,483.26	+0.68%	WTI	69.19	-4.33%
MSCI 전세계 지수	693.17	-0.19%	브렌트유	74.18	-3.91%
MSCI DM 지수	3,023.22	-0.11%	금	2043.8	+0.37%
MSCI EM 지수	972.03	-0.84%	은	23.97	-0.95%
MSCI 한국 ETF	61.14	-0.65%	구리	371.55	-1.51%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0.28%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0.65% 하락. 유렉스 야간선물은 0.13%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314.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8일 미국 비농업부문 고용을 둘러싼 경계심리 조기 유입 가능성 2. 국제 유가 급락 등에 따른 국내 정유주 주가 변동성 확대 여부 3. 장중 발표 예정인 중국의 수출입 지표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12 월 이후 증시의 반등 탄력은 약해졌어도 VIX 지수가 7 일 기준 12.9pt 대로 역사적인 하단 부근까지 내려오는 등 전반적인 증시의 변동성은 위험선호심리에 큰 변화를 주지 않고 있는 양상(10 월말 이후 VIX 는 약 40% 하락).

시장의 위험 선호도를 측정하는데 활용되는 시티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 상으로도 마찬가지. 7 일 기준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는 0.09pt 로 연간 평균치 0.25pt 를 큰 폭 하회하고 있으며, '17 년 이후 최저 레벨에 도달했을 정도로 위험선호심리가 지배적인 모습(시티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는 미국 단기 금리 스프레드, 이머징 마켓 가산금리, 금융시장 가격 변화 등을 종합해 지수화한 지표로서, 통상적으로 0.5pt 를 상회하면 위험회피심리 우위, 0.5pt 를 하회하면 위험선호심리로 인식).

반면, 차주 예정된 CPI 와 FOMC 를 둘러싼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일례로, 주식시장 변동성인 VIX 지수(10 월말 18.1pt → 11 월말 12.6pt → 현재 12.9pt)는 최근 내려온 상태이지만, 채권시장 변동성인 MOVE 지수(10 월말 129.1pt → 11 월말 115.3pt → 현재 125.0pt)는 다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볼 필요. 이는 금리 변화에 더 민감한 채권 시장에서는 12 월 FOMC 경계심리가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

다음주까지 수시로 언급을 하겠지만, 일단 12 월 FOMC 에서의 관련 포인트 중 하나는 점도표 변화 여부이며, 연준은 내년도 2 회 인하 유지 혹은 1 회 인하로 축소 등의 다소 신중한 인하 경로를 제시할 소지가 있음. 즉, 시장에서 형성 중인 내년 5 회 금리인하 기대감을 일정부분 통제해 나갈 것이라는 전제를 12 월 FOMC 이전 증시 대응 전략의 베이스 경로로 상정하는 것이 적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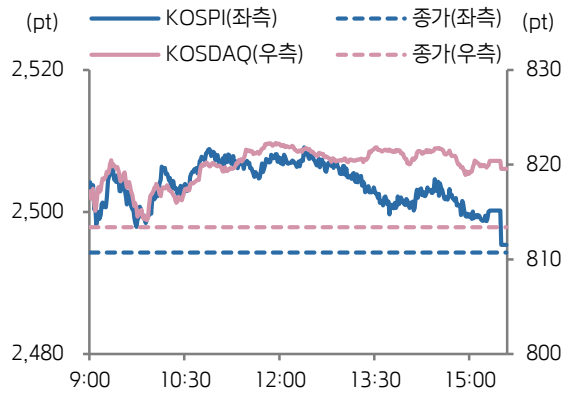
이와 더불어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현재의 낮은 증시 변동성, 낙관론 우위, 지수 고점 부근 레벨 등이 빌미가 되어 단기적인 노이즈가 유발될 수 있음에 대비할 필요. 가령, 미국의 원유수출 증가, 중국 경기 부진 등이 맞물리면서 WTI 유가가 70 달러를 하회한 것이나 민간 고용 부진 등으로 10 년물 금리가 4.1%대 내려간 것을 놓고서, "미국 경기 하드랜딩이 불가피하니까 저렇게 하락한 것"이라는 의견들이 대표적인 노이즈 사례가 될 것. 그 과정에서 미국, 한국 모두 중소형주 중심으로 주가 및 수급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기에, 대형주 위주의 포트 비중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

전일 국내 증시는 미국 구인건수 둔화에 따른 미국 금리 하락 속 기관의 순매수에도, 경기 침체 불확실성도 동시에 유입된 여파로 외국인이 순매도를 보이는 등 주요 수급 주체간 엇갈린 매매 패턴을 연출함에 따라 소폭 상승 마감(코스피 +0.04%, 코스닥 +0.8%).

금일에도 국제 유가 급락 및 금리 급락이 초래할 수 있는 미국 경기 하드랜딩 불확실성, 고용, CPI, FOMC 등 차주까지 예정된 대형 이벤트에 대한 경계심리 지속 등으로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이후 중국의 수출입 지표, 미국 선물 시장 움직임 등에 영향을 받으면서 기존의 개별 종목간 순환매 장세가 이어질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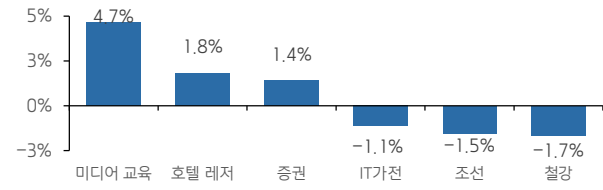
업종 관점에서는 미국 정부의 대중 수출 규제 불안, 미국 경기 하드랜딩 시 전방 수요 부진 가능성 등으로 인해 엔비디아(-2.3%) 등 반도체주, 엑슨모빌(-1.3%) 등 에너지주들이 동반 약세를 보였다는 점을 감안 시, 금일 국내 증시에서도 관련주들의 투자심리가 부정적으로 흘러갈 여지가 있다고 판단. 또 암호화폐, 전속계약, 구글 투자, 트위터 국내 사업 중단 등 전일 여러 테마들이 관련 개별 종목들의 폭등세를 유발했던 만큼, 금일에는 전반적인 증시 분위기와 맞물려 이들 종목들의 수급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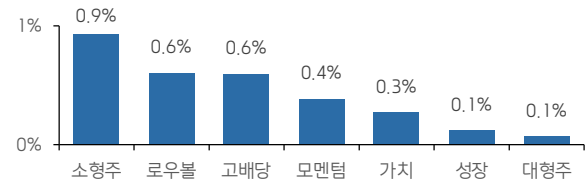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